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YahooFinance: 6월 미 채용 공고 감소...고용률 감소로
- AP: 미 소비자 신뢰 지수 약간 상승...여전히 관세 여파 우려
- WSJ: 연준, 금리 인하 시점 놓고 의견 갈려
- WSJ: 미 무역 수지 감소...수입보다 수출이 떨어져
- WSJ: IMF, 무역 갈등 완화로 글로벌 성장 전망 올려...미국 1.7%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미 부유층의 신용카드와 자동차 융자 연체율 상승
- Bloomberg: 무디스, "사모펀드 기업들 전 분기보다 디폴트 부채 80% 상승"

[주택]

- Bloomberg: 미 주택 가격 상승 4개월째 둔화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AI 붐으로 치솟는 전력 비용...누가 부담할까?
- WSJ: 무역 협정으로 유럽 명품 업계 안도
- Reuters: 8월 미국 여행 회복세...기업 수익 전망 밝아져
- Reuters: 비자-마스터카드, 견고한 소비 추세로 수익 증가 전망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YahooFinance: Job openings slide in June as hiring rate hits 7-month low

6월 미 채용 공고 감소...고용률 감소로

- 언제 연준이 금리를 내릴지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노동 시장의 둔화 조짐을 보이는 지표인 미 채용 공고가 감소했다.
- 연방 노동청의 오늘 화요일 발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미 일자리 공고는 7백44만 개로 전월의 7백71만개 보다 줄었다. 5월 수치는 작년 11월 이래 최고치를 보였던 숫자였다.
- 또한 고용숫자는 5백20만 개로 5월의 5백47만 개보다 줄어들었다. 고용률이 3.4%에서 6월에는 3.3%로 줄어든 것이다.
- 근로자들의 자신감을 측정하는 이직률은 2%에 머물고 있어 노동 시장 여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.

YahooFinance 기사

AP: US consumer confidence improves slightly in July, but Americans remain concerned about tariffs

미 소비자 신뢰 지수 약간 상승...여전히 관세 여파 우려

- 미 소비자들이 7월에 미 경제가 약간 나아졌다고 보지만 여전히 관세의 경제 여파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컨퍼런스 보드의 오늘 화요일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신뢰 지수는 7월에 2포인트 상승한 97.2를 기록했다. 이는 전달의 95.2보다 상승한 수치다.
- 미국인들의 단기 전망치를 측정하는 미국인들의 소득, 비즈니스 여건, 일자리 시장 지수는 4.5 포인트 상승한 74.4를 기록했다. 그러나 이는 여전히 80보다 하락해 침체 가능성 신호로도 우려되고 있다.
- 소비자들의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1.5포인트 하락한 131.5를 기록했다.

AP 기사

WSJ: A Divided Fed Eyes Future Rate Cuts but Won't Move This Week 연준, 금리 인하 시점 놓고 의견 갈려

- 연준의 7월 정례 회의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한 직후 금리 정책을 발표하게 된다.
- 현재 연준 관리들은 올해 초부터 금리 인하를 중단하고 있는데 언제 인하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.
- 일부는 지금 금리를 인하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다른 이들은 경제 지표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.
- 트럼프의 연준 금리 인하 압박도 이 같은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다. 현재 연준은 인플레이 리스크냐, 아니면 경제적인 약세냐를 두고 균형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.

WSJ 기사

WSJ: U.S. Trade Deficit for Goods Shrinks 미 무역수지 감소...수입보다 수출이 떨어져

- 지난달에 미국의 교역량이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감소함에 따라 무역 수지는 둔화했다.
- 오늘 화요일 연방상무부 예비치에 따르면 6월 상품 적자는 8백60억 불을 기록했다. 이는 5월의 9백64억 불보다 줄어든 수치이다.
- 당초 트럼프의 관세 발표 조치로 발효 전에 수입이 크게 증가한 후에 4월부터 수입이 줄어들었다.

WSJ 기사

WSJ: Tariff Detente Lifts Global Growth Outlook, IMF Says IMF, 무역 갈등 완화로 글로벌 성장 전망 올려...미국 1.7%

- IMF는 최근 무역 긴장 완화와 회복 중 국제 교역으로 인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2.7%로 상향 조정했다. 4월에는 2.4%였다.
- 미국과 중국은 상호 간 관세 휴정으로 전망치 상승했으며 미국은 예산 조정 통과 후에 관련 전망치가 상승했다.

- IMF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는데 작년보다는 낮지만, 트럼프의 관세 조치 발표 때보다는 높게 예상하고 있다. 올해 미국 경제는 1.7%, 유럽은 0.7%, 중국은 3.8%로 예상했다.

WSJ 기사

[미국 금융]**Bloomberg: Even Top Earners Are Falling Behind on Credit Card and Car Payments****미 부유층의 신용카드와 자동차 융자 연체율 상승**

- 관련 조사 기관인 VantageScore에 따르면 미국이 상류층의 크레딧 카드와 자동차 융자의 연체율이 지난 2년간 20% 상승했다.
- 무디스의 선임 경제학자인 Mark Zandi는 “고금리에다 학자금 융자 지원 프로그램이 종결되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든 계층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확산해 진 상황”이라고 말했다.
-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Juan Sánchez는 이 같은 부채 부담은 경제가 다른 충격에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“부채 문제는 소비 전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”고 우려했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Private Equity Drives 80% Jump in Defaulted Debt, Moody's Says**무디스, “사모펀드 기업들 전 분기보다 디폴트 부채 80% 상승”**

- 트럼프의 관세 시책 발표 후에 신용 여건이 악화해 사모펀드 소유 기업들이 디폴트가 증가하고 있고 부실 채권 교환(Distressed Debt Exchange)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Moody's Ratings는 밝혔다.
-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21개 기업이 2백70억 불 이상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전 분기의 15개 기업이 1백50억 달러 규모의 디폴트를 보인 상황보다 크게 악화된 것이다.
- 많은 사모펀드 소유 기업들은 상장 기업보다 더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재무 취약성이 강하고 2분기에 파산된 기업 5개 중 평균 3개가 사모펀드 소유 기업으로 나타났다.

Bloomberg 기사

[주택]**Bloomberg: US Housing Market's Price Growth Slows for Fourth Straight Month****미 주택 가격 상승 4개월째 둔화**

- 미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4개월 연속으로 둔화하고 있다. 높은 가격과 주택 담보 대출 금리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것이다.
- 20개 주요 도시 중 뉴욕이 7.4%로 연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, 시카고와 디트로이트가 각각 6.1%와 4.9% 상승하며 그 뒤를 이었다.
- 반면, 탬파는 2.4% 하락해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고, 댈러스, 샌프란, 덴버도 소폭 하락했다.
- Bright MLS의 이코노미스트 Lisa Sturtevant는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고금리와 경제 우려가 지속된다면 주택 시장은 침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Who Pays? AI Boom Sparks Fight Over Soaring Power Costs AI 붐으로 치솟는 전력 비용...누가 부담할까?

- AI 산업의 급성장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증가하자, 기술 기업과 전력 회사 간 비용 분담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.
- 전력 회사는 일반 고객의 요금 인상을 피하고자 기술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더 많은 전력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한다.
-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Dominion Energy는 전력 사용량이 적더라도 계약 기간을 더 길게 갖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.
- 이에 대해 구글, 아마존 등 기술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 전가는 지나치며, 이 조치는 AI 개발과 인프라 확장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산업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.

WSJ 기사

WSJ: Trade Deal Brings Relief to Europe's Luxury Industry 무역 협정으로 유럽 명품 업계 안도

- 최근 EU와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 협정으로 EU 내 대부분의 상품에 15% 관세가 부과된다. 이는 고가 제품 구매를 꺼리던 소비자들의 수요 위축 우려를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인다.
- 장기화한 무역 협상으로 인해 악화했던 소비자 심리가 완화되었으나, 15% 관세는 여전히 명품 업계의 가격 인상 여지를 제한할 수 있다.
- 이와 관련 루이비통, 구찌 등 일부 그룹은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을 배제했고, 관세의 영향을 제한하고자 공급망 조정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.
- 그러나 프랑스 화장품 업계 등 일부 그룹들은 미국-EU 무역 협의로 인한 낮은 마진으로 경쟁력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.

WSJ 기사

Reuters: US travel bookings rebound for August, boosting companies' revenue outlook 8월 미국 여행 회복세...기업 수익 전망 밝아져

- 미국 소비자들이 8월 여행 예약을 다시 시작하면서 항공 업계가 회복 조짐에 안도하고 있다. 미국 소비자 심리가 7월 들어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, 소비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.
- 여행사들은 예약률이 증가함에 따라 4분기 매출 성장세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. 일부 회사는 3분기 말이 2025년 수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.
- 무역 전쟁으로 인해 항공업계가 팬데믹 이후 가장 불확실한 시기를 겪으며, 4~5월 재정 전망 철회나 삭감을 겪었던 항공사들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.

Reuters 기사

Reuters: Visa, Mastercard set for higher profits on solid spending trends 비자·마스터카드, 견고한 소비 추세로 수익 증가 전망

-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지속적인 소비자 지출에 힘입어 분기 이익 증가를 예상했다.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 불확실성 속 여행 및 자유재 구매에 대한 수요에 주목하고 있다.
- 오픈하이머의 애널리스트들은 “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이다. 경기 침체 시 지출 증가를 안정화하는 능력이 입증되었다”고 말했다.
- 일각에서는 2025년 하반기에 지출이 둔화할 것이라 예상하는데, 무역 긴장과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 어느 정도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다.
- 한편, 비자와 마스터카드 주가는 연초 이래 각각 13%와 8% 가까이 상승했다.

Reuters 기사

[보고서]

연준, 30일 회의서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'금리동결' 전망 월러·보먼 이사는 '0.25%p 인하' 주장할 듯

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는 오는 30일(이하 현지시간)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4.25~4.50%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.

하지만 연준 위원 중 한두명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.

현재 미국의 경제는 소비지출은 강한 반면 주택이나 건설 분야는 약세로 나오는 등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.

...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

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